

광주시 산하기관서 성희롱 '의혹'

광주시의 한 산하기관에서 성고충처리위원이 여성 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5일 시 산하 모 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9일 고객상담원인 여직원 A씨로부터 성희롱 피해 신고가 기관에 접수됐다.

A씨는 "민원 담당자이자 직장 내 성고충처리위원인 B씨가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고 부적절한 언행으로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지난해 2월에도 B씨의 성희롱이 있었다. 당시 무기계약

성 고충처리위원의 성적 언행에 피해 호소

시 인권옴부즈만 조사·경찰에 고소장 접수

직 전환을 앞두고 있을 때여서 민원 대응 업무를 하는 B씨의 인사상 보복이 두려워 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B씨는 일부 언행에 대해서는 시인했으나 A씨와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B씨를 민원대응 업무에서 배제해 A씨와 직무상 분리했으며, A씨에게 5일 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했다.

또 A·B씨의 동의하에 시 인권옴부즈만에 해당 문제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센터 관계자는 "관리 소홀 책임

을 인정한다"면서 "공정한 조사를 위해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조사를 의뢰했으며 권고결과에 따라 B씨에 대한 인사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직장 내 성희롱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에 대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0일 경찰에 B씨를 성추행·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서은홍 기자

스페인 경찰 '투계장' 급습 182명 체포

스페인 경찰 당국은 불법 투계(닭싸움)에 참여한 관계자 182명을 동물학대 혐의로 체포했다고 14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한 죽은 수탉, 현금 및 대마초를 압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12일 스페인 남동부 무르시아 지역 비밀리에 운영되던 불법 투계장을 급습한 바 있다. 피의자들은 전국 투계대회에 맞춰 이곳의 투계장에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6마리의 죽은 수탉과 97마리의 수탉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 현장에서 발견된 도박 자금 30만유로(약 3억8600만원)도 몰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스페인 전역에서 모인 수탉 사육업자들로, 승물을 높이기 위해 닭의 발톱에 쇠로 만든 날카로운 쇠발톱을 달거나 공격성을 높이기 위한 약을 주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페인 법에 따르면 동물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 피의자의 행위로 인해 동물이 죽었을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스페인 경찰은 2011년에도 같은 장소에서 100여명을 체포한 바 있다. 유럽에서 투계는 로마시대부터 이어진 전통적인 놀이로 인식돼 왔으나 19세기가 넘어가며 두 마리의 닭 중 한 마리가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잔혹성으로 인해 법적으로 금지해 왔다.

스페인 동물보호법을 통해 1991년 투계를 전면 금지했으며 카나리아 제도, 안달루시아 지방에서만 문화유산보호를 위해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남극 빙하 해빙 속도 40년 동안 6배 빨라져

남극 빙하가 녹는 속도가 40년 동안 약 6배 빨라졌다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지구 온난화에 대한 우려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14일(현지시간) CNN에 의하면 1979년 이후 남극 대륙의 빙하를 살펴온 에릭 리노 어반 캘리포니아대 교수 연구진은 남극 빙하의 붕괴 뿐 아니라 그 속도 및 지역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미 과학자협회 회보에 실린 이번 연구 보고서에는 빙하가 녹는 속도가 일관되지 않고 10년마다 연속적으로 더 빨라진다는 내용이 담겼다.

남극 빙하는 1979~1990년 매년 40G(기가톤)이 사라졌지만 2009~2017년에는 250G로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남극 대륙에서 바로 바다로 이어지는 빙하 176개를 조사했다. 남극 대륙 빙하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높이 상승과 연관성이 높은 지표로 꼽힌다. 남극 대륙의 대부분은 빙하로 구성돼 있으며, 녹을 경우 평균 해수면이 57.2m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연구 결과에는 동부 남극 대륙 빙하 역시 서부 못지 않게 빠르게 녹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과거 다른 과학 연구들에서는 서부 남극 대륙의 경우 해빙 속도가 빠르지만 동부는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노는 "그간 과학자들은 빙하 녹는 속도가 빠른 서부 쪽에 주목해왔지만 동부 쪽에서도 이토록 해빙 속도가 빠른 줄 몰랐다"며 지역과 속도 모두 우려스럽다는 점을 강조했다.

캐나다 초교 일산화탄소 증독으로 43명 입원

캐나다의 한 초등학교에서 14일(현지시간) 일산화탄소 증독으로 의심되는 증독으로 어린이 35명과 어른 8명 등 모두 43명이 병원으로 후송돼 입원했다.

캐나다의 리살르 시에 있는 에롤 데 데쿠브르르 초등학교의 학생들은 갑자기 구토와 현기증, 메스꺼움에 시달리다가 구급차로 병원에 옮겨졌다고 응급구조대 대변인이 말했다. 어른 1명을 포함한 15~20명이 맨 처음 발병했다.

하지만 학교의 나머지 인원들이 모두 인근 다른 학교로 대피한 이후에 또 다른 일단의 어린이와 교사가 같은 증상을 보였다.

발병원인은 일산화탄소 증독으로 보이고 있지만 원인은 알아내지 못했다. 구급대 대변인은 전했다. 학교측은 학부모들에게 보낸 긴급 이메일에서 "학교 난방 시스템과 관련된 듯 하다"고 전했다.

오후 12시 30분 몬트리올 아동병원은 다수의 환자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발령하는 적색경보를 발했다.

12명의 환자를 입원시킨 이 병원은 이들이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으며 모두 안정적 상태라고 말했다.

22명의 학생이 입원한 몬트리올의 또 다른 소아병원에서도 환자들중 위독한 어린이는 없다고 말했다.



등심으로 돌아간 장병들 15일 오후 강원 화천군 화천천 일원에서 열리는 화천산천어축제장을 찾은 군 장병들이 눈썰매를 즐기고 있다.

'청정기·마스크↑·키즈카페 북적' 미세먼지 신흥속도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광주시민들의 일상생활이 변하고 있다.

광주·전남 전역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내려진 15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버스 정류장.

시내버스를 기다리던 이모(57)씨는 "하늘이 온통 뿌옇고 숨 쉬기 답답하다. 평소 착용하지 않던 마스크도 가족들의 권유로 쓰고 나왔다"면서 "요즘 들어 세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출근길에 나선 직장인들 대다수도 마스크를 쓰거나 목도리·외투를 얼굴을 가린 채 발걸음을 재촉했다.

스마트폰으로 미세먼지 농도 수치를 확인하던 한 시민은 자녀들에

게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다.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공기청정기·기능성 마스크 판매량도 부쩍 늘었다.

한 전자제품도매점 관계자는 "최근 공기청정기 구입과 관련한 문의가 늘었다. 지난해 여름철 한달에 2~30대꼴로 판매되던 공기청정기가 지난해에는 100~110대 가량 팔렸다"고 밝혔다.

박모(49·여)씨는 "중국어발 미세먼지와 집 앞 공사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때문에 며칠 전 공기청정기를 장만했다. 연일 대기 질이 나빠 수준을 보여 구매하길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약국을 운영하는 이종기(60)씨는 "대기 질이 양호할 때는 하루에 1~2개씩 판매되던 기능성 마스크가 요즘에는 불타나게 팔리고 있다.

한 번에 10~15개씩 대량으로 구입하는 시민도 늘었다"고 전했다.

특히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들은 미세먼지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20개월된 딸을 키우고 있는 김별(27·여)씨는 "문화센터 학부모 사이에서는 미세먼지가 가장 큰 화두다. 매일 아침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미세먼지 농도 현황이 공유될 정도다"면서 "최근에는 아이들 사이에서 미세기관리염 등 호흡기 질환이 유행이라고 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 때문에 외출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실내 키즈카페 등지를 찾게 되지만 최근에는 자리를 잡기 힘들 정도로 북반다"고 덧붙였다.

조인호 기자

전남 일선 시·군 사망사업

부적절 사례 무더기 적발

지난해 전남 일선 시·군에서 시행한 사망(死傷) 사업에 대한 전남도의 특징감사 결과 부적절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도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시행된 도내 14개 시군의 사망사업과 관련된 특징감사를 통해 총 37건의 부적절 사례를 적발해 주의 16건, 시정 17건, 권고 2건을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 결과 ▲사망지 지정 고시 미실시 ▲사망사업 하자감사 미실시 ▲현장대리인, 감리원 배치기준 위반 ▲사망사업 감리비 예산집행 소홀 ▲사업비 정산소홀 ▲지역산 사태연도대책 미수립 등이 다수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여수시는 지난해 사망사업 설치사업 4곳을 공사 착공일로부터 5~6개월이 지난 뒤에도 지정 고시하지 않는 등 사망지 관리를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시 사망사업 시공감리용역 과정에서 지정 감리원이 퇴사한 후에도 감리원 변경신청을 하지 않는 등 안전, 공사 품질 관리를 소홀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양시는 지난 2012년~2017년 기간 준공된 공사 82건에 대해 하자감사를 하지 않았고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만료된 사망사업 설치사업 등 9건에 대해 최종 하자감사도 하지 않았다.

담양군은 애초 계획보다 운반 거리가 더 가까운 다른 체재장에서 골재를 구매 운반했는데도 확인하지 않는 등 전성운비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사망사업 집행잔액 사용방안에 대한 검토 사망지 지정 해제에 관한 법령 개선 요구 등 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환 기자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이는요... 자태치로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만 14세는 임신기간이 종료하였으나, 미지 역의 임신 완료세로.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29] [고객센터 1577-1000]